



안녕하세요. 저는 전현진 수녀입니다. 중학교 때 친구의 초대로 성당을 갔지만, 긴 교리 수업에 세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니의 인도로 다시 교리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서울 매니먼트사에 취직하여 6개월의 짧은 직장 생활을 하다 적성에 맞지 않은 걸 일찌감치 깨닫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다니시던 성당에 사무원을 구하는 구인을 보

고 취직하여 만 6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실망도 많이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적인 어려움을 뒤로 하고, 주님 때문에 매순간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살려는 모습이 가치 있는 삶이라 여겨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도성소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마침 근무 중 실시간 생활성가 방송에서 저희 수녀회 성가 "외쳐라 지붕 위에서"를 듣고 본회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1일 입회하였고, 2012년 2월 19일 첫서원과 2019년 2월 25일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논산 씨튼 영성의집에서 피정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수련자 때 파견실습을 한 후 3번째 이곳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파견 받아 살 때는 깨닫지 못했던



하느님의 은총이 매번 저에게 꼭 맞게 주어졌음에 늘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어느 자리에 가든 그 자리는 분명 주님이 마련하여 주신 꽃자리라 여기며 성실히 생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2번의 본당 사도직과 종신서원 후 씨튼수녀회 사회복지원에서 3년간 법인업무를 하며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도직을 하며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싶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2024년 저는 인천 새터민지원센터로 파견을 받아 제가 희망하였던 현장에서 사도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사도직이라 어려움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분들과 기쁘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소중한 자리이기에 그분의 뜻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Hello, I am Sister Jeon, Hyun Jin.

In middle school, a friend invited me to a Catholic church, but I failed to be baptized because the catechism class was too long. However, my mother guided me back to church again in my junior year of university. This time, I completed the catechism course and was finally baptized.

After I major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in the university, I got a job at an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y in Seoul. After just 6 months, I came to realize that it was not the

right fit for me, and then returned to my hometown. I saw a job posting for office staff at the church that my mother attended. I took the position and worked there for 6 years. When I worked with priests and sisters initially, I was disappointed by the lives that they showed. However, I came to appreciate the value in their dedication, as they put aside personal weakness and difficulties to live joyfully for the Lord. Inspired by their example, I began to dream of a religious vocation.

One day, I heard the song ‘Shout to the Lord’ by the Sisters of Charity of the Korean province on the radio. This encounter led me to meet the Sisters of Charity, and eventually I entered the Congregation on March 1, 2008. I made my first profession of vows on February 19, 2012, and my final Vows on February 25, 2019.



Now, I am ministering for retreats at Nonsan Seton Spiritual Center. This is my third assignment here; my first experience was as a second-year novice. In each assignment, I have been increasingly grateful that God’s grace has perfectly tailored to me even though I did not realize it at first. I strive to live faithfully wherever I am, believing that each place is the best place the Lord has prepared for me.

I also worked in pastoral ministry twice at parishes. After my perpetual profession, I studied social welfare while working at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office for three years. Throughout the time, I had a hope for an

opportunity to have an experience in the fieldwork of social welfare. In 2024, my hope was fulfilled. I was assigned to the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Incheon. Here, I can carry out my ministry in the fieldwork that I longed for. Though there may be challenges in my first experience, I am committed to living joyfully with the people whom I work with. I believe it is a precious place that the Lord has prepared for me, and I will live as a faithful servant following His will.

